

라캉의 기호적 주체론

박찬부

소쉬르에게서 기호, 특히 기표의 개념을, 그리고 야콥슨에게서 은유와 환유의 개념을 빌어와 그것에 일정한 수정을 거쳐 정신분석학에 도입함으로써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언어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논지의 핵심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생성 원리로 본 원초적 억압이 주체의 언어 진입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초적 억압의 골격을 이루는 오이디푸스적 삼각 구도는 바로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로 대치되는 언어의 메타포 공식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무의식의 생성 조건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무의식은 그것이 의식계에 기호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때 기표의 길, 다시 말해서 유사성과 인접성에 바탕을 둔 은유와 환유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구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재해석한 라캉의 생각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 pre-Oedipal에 해당하는 언어 습득 이전의 단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상상계, 혹은 '거울 단계'라 명명했다. 이 단계에서는 주체와 객체, 자아와 세계, 안과 밖의 구분이 서 있지 않은 나르시시즘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어린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영상 이미지, 혹은 이것과 비견되는 '타자'를 자신과 동일

시함으로써 ‘나’라는 자아를 형성해간다. 그런데 이렇게 나 밖에 있는 타자를 자신과 동일시, 혹은 혼동함으로써 얻은 자아는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을 면치 못한다. 조숙한 출생으로 인해 아직 신체적 조절과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한 어린아이가 거울 속에 비친 통일되고 균형 잡힌 게슈탈트Gestalt를 자아상으로 환호하며 받아들이는 행위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지각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아의 전체성, 통일성에 대한 믿음과 강조가 모두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라캉은 고발한다. 그가 미국의 자아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것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캉에 있어서 인간 주체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자아의 탄생이 아니라 ‘주체의 탄생’이다. 이 주체의 탄생은 상징 질서, 곧 언어로의 진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체와 객체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안과 밖이 혼동된 무질서, 무정형의 상태에 언어의 질서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주체는 화려하게 탄생한다. 그것은 혼동되고 무질서한 음의 세계와 역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미분화된 의미의 세계를 가르고 분절한 다음 이 둘을 연결시켜 질서의 세계로 기호를 탄생시키는 소쉬르의 다이어그램을 연상시킨다.

언어의 습득과 더불어 인간은 더 이상 사물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갖는 ‘상징 질서’ 속에 살게 된다. 언어적 기호, 상징이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과 대상을 ‘대신하고 stand for’ ‘대치한다 stand in for.’ 사물에 대한 이러한 기호적 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이미 그 자체로 은유적 성격을 띤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라프타’인들처럼 의사소통에 필요한 물건들을 일일이 등에 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화를 위해서는 오직 언어의 규칙과 질서를 익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언어의 존재는 사물과 대상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부재 속에 존재를 형성하듯이 부재를 배경으로 한 존재”다. 언어적 기호가 ‘사물의 타살’ 위

에 서 있다는 논리는 사물과 기호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말한 소쉬르의 우상 타파적 발언 속에 이미 강조되어 있고 라캉의 '상징 질서'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연결된다.

상징은 무엇보다도 사물의 타살로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주체 속에 그의 욕망을 영속화시킨다.¹⁾

라캉의 이 말은 헤겔을 설파하고 있는 코제브에 의해서 더욱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된다. "의미(본질)로서의 개(犬)가 '개'라는 '말(言)'로 바뀔 때, 다시 말해서, 그 개가 그 의미를 통해서 드러내보이는 감각적 실체와 '다른' '추상적' 개념이 될 때, 그 의미(본질)는 '죽는다.' '말'로서의 '개'는 달라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경험적 실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타살'과 맞먹는다."²⁾ 상징에 의한 사물의 타살은 필연적으로 사물과 상징, 혹은 존재 차원과 의미 차원 사이에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형성하고 이 간극은 필연적으로 주체의 사라짐, 즉 소외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는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생물학적 차원의 개로부터 소외되어 '개'라는 언어적 기호가 엮어내는 의미망 속에 살도록 '처형'된다. 이 처형의 이미지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언어의 감옥'이라는 또 다른 메타포를 연상시키고 언어와 사물 사이의 단절을 선언한 소쉬르의 '자의성'의 논리하고도 연결된다. 기호와 상징의 세계, 즉 라캉이 말하는 '비재현적 재현 non-representative representation'의 세계에 살도록 처형된 주체는 하나의 기호가 계합적으로 paradigmatically, 통합적으로 syntagmatically, 혹은 야콥슨의 표현을 빌려, 은유와 환유적으로 엮어내는

1) Jacques Lacan, *Ecrits: A Selection* (Alan Sheridan 영역, New York: W. W. Norton, 1977, p. 104).

2) Alexandre Kojè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James Nichols, Jr. 영역, New York: Basic Books, 1969, p. 140).

의미망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론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기표 '개'는 유사성의 축에 따라 다른 기표들 '소' '말' '사람' 등과 연상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의미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인접성의 축에 따라 "개가 땀다" 같은 의미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라캉은 이와 같이 인간 주체가 존재 차원에서 의미 차원으로 진입하면서 상징과 기호의 의미망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음을 「말과 언어의 기능과 분야」 같은 글에서 강력하게 논변하고 있다.

우리는 상징의 출현에 의한 사물의 타살이라는 메타포 속에서 어떤 부정적 반작용 같은 것을 예감할 수 있다. 이 사물이 외부의 현상적 실재뿐만 아니라 내부의 본능적 충동 같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때, 타살된 실재, 충동들이 그대로 죽어 사라지고 말겠는가. 정신분석가 라캉의 특징은 이러한 언어적 현상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주체의 언어 진입은 오이디푸스적 삼각 구도와 맞물려 있고 아버지의 금제의 목소리를 통한 어머니/아이를 형성된 이자(二者) 구도의 해체는 거세 castration의 위협과 함께 '죽음'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죽음은 필연적으로 상실과 결핍을 가져오고 이 상실과 결핍의 무덤 위에서 욕망의 꿈이 피어오른다. 이후부터 그 아이는 '욕망하는 주체 desiring subject'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위 인용문에서 라캉이 상징의 출현을 사물의 타살과 연결시킨 다음 그 "죽음이 주체 속에 그의 욕망을 영속화시킨다"고 말해 상징과 죽음, 욕망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파악하고 있는 대목과 일치한다. "프로이트의 세계는 사물의 세계도 아니고 존재의 세계도 아니며 바로 욕망의 세계다."³⁾ 데카르트에게 사유 cogito가 문제였다면 프로이트에게는 욕망 desidero이 문제였다고 라캉은 말한다.

라캉은 이렇게 상징적 거세를 거쳐 드러난 욕망하는 주체를 '존재'의

3) Jacques Lacan, *The Seminar. Book III: The Ego in Freud's Theory and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1954~1955(Sylvana Tomaselli 영역, New York: W. W. Norton, 1988, p. 261).

결핍 manque à être'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라캉의 동의를 얻어 번역된 이 말의 영어식 표현 'want-to-be'는 'want'가 '원하다'와 '결핍되다'라는 뜻을 동시에 포괄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욕망하는 주체, 결핍된 주체의 두 가지 함의를 적절하게 전달한다고 생각된다.

존재와 결핍, 그리고 욕망의 문제를 위해 라캉은 헤겔과 하이데거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특히 전자의 정신현상학, 주인/노예의 메타포 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파리에서 헤겔 강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코제프를 통해서 많은 암시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강의에 같이 참석했던 메를르 폰티나 사르트르로부터의 영향도 적지 않았지만 후자의 의식 현상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사실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는 정신 현상을 의식의 문제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 아래서 무의식의 개념 설정 자체를 반대했고 따라서 프로이트의 무의식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그의 이른바 '검열자 비판 censor criticism'은 이러한 논지의 핵심을 이룬다.⁴⁾

그러나 『존재와 무』에서 개진하고 있는 사르트르의 인간 존재론은, 물론 그 지칭의 틀은 다르지만, 라캉이 추구하고 있는 존재와 결핍, 욕망의 문제를 비슷한 관점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르트르는 무(無)로서만 존재하는 의식을 결핍된 존재라고 부른다. 따라서 무로서만 존재하는 의식 결핍이 채워진 충족된 존재, 즉 유(有)로서의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런 구조를 가진 의식은, 마치 굶주려 허전한 위가 음식을 욕망하듯이 항상 무엇인지를 욕망하여 스스로의 무를 채워서 유가 되고자 한다."⁵⁾ 라캉의 경우, 사물의 타살과 상징적 거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욕망하는 주체는 이 과정에서 상실한 '잃어버린 대상 lost object'을 찾아 끝없는 미로를 헤매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그는 이 대상을 '오브제 아 objet a'라고 표현하고 분열된 주체가 이것과 결성하는 환상의 구조를 \$◊

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해석학과 에너지론 사이: 프로이트의 무의식론」, 『현대 비평과 이론』 12(1996), pp. 28~30.

5) 박이문, 『시와 과학』, 일조각, 1975, pp. 77~78.

a로 도식화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그 유명한 'fort/da' 게임을 통해 상징 질서가 갖는 사물의 타살과 '기호적 중재 semiotic mediation'의 문제를 예언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라캉과 데리다 등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에 나오는 이 일화는 한 살 반된 프로이트의 손자가 벌이는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상징적 지배 논리'를 설명해 준다. 그 아이는 침대에서 실패가 부착된 끈을 던지면서 '오—o-o-o-o' 소리를 냈고 그것을 끌어당기면서 즐거운 듯 '다 da(여기에)' 소리를 연발했다. 프로이트에 의해 'o-o-o-o'를 독일어의 'fort(간, 사라진)'로 해석된 이 놀이에서 프로이트는 어머니의 사라짐과 나타남, 혹은 그녀의 부재를 존재화하려는 상징적 의미를 읽었다.

그렇다면 그 게임의 해석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그 아이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 즉 그가 아무 저항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데서 이룩하는 본능의 포기(다시 말해서, 본능적 만족의 포기)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대상의 사라짐과 되돌아옴을 자신의 기능 범위 내에서 몸소 연출해냄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⁶⁾

이 일화는 기호의 '의미론적 대치 과정 signifying substitution'을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은유적 대치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실패가 어머니의 메타포고 그것을 던지고 끌어당기는 데서 엮어지는 존재와 부재의 교차 현상은 어머니의 오감에 대한 또 다른 메타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이런 상징적 놀이를 통해 불유쾌한 상황의 수동적 희생자로부터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적 관점을 획득한다는 사실이다.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떠나 보내고 데려옴으로써 그는 그 상황

6) Sigmund Freu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Sigmund Freud* (James Strachey 편역, London: Hogarth, 1953~1973, 18권, p. 15).

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밀착된 '본능적' 관계를 포기하고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놀이의 상징성과 음소의 대극적 구조를 형성하는 시니피앙 'o/a'의 변별적 차이였다. 라캉은 이 'fort/da' 게임에서 존재 차원에서 의미 차원으로 진입하는, 인간 발달 과정의 전형을 본 것이다.

프로이트는 본격적인 'fort/da' 게임이 있기 전 그의 손자가 몇 마디의 말을 알고 있었다고 전언한다. 그러나 그것은 토막말들로서 계열적·통합적 연결이 결여되어 있어 어떤 의미를 발생시키는 데 실패했다. 'fort'와 'da'를 짝을 지어 발음하지 못하고 'fort'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이것을 설명해준다. 라캉은 이 외쪽의 기표를 '단일 기표 unary signifier'라 명명하여 'da'와 같이 이것과 짝을 이루어 계열적·통합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항 기표 binary signifier'와 구별하였다. 단일 기표는 존재와 의미 사이에 위치하는 '비의미 non-meaning'로서 드러난다. 이 단일 기표는 존재로의 환원도 불가능하고 의미의 구조 속에 참여하는 것도 유보되어 있다. 그것은 뒤에서 라캉의 메타포 공식을 통해서 설명되겠지만, 의미의 구조는 제1기표 S_1 과 제2기표 S_2 와의 관계, 즉 '의미화의 대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da'라는 제2의 대항 기표의 등장과 더불어 급반전한다. 음성 이미지 'o' 'a'의 변별적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fort/da'의 결합은 계열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완벽한 의미화 고리를 형성하여 주체의 상징 질서 진입을 결정지워버린다. 이것은 어둠의 세계에 빛을 비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실로 창세기적 사건이다. 이후부터 주체는 존재의 세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상징 질서가 엮어내는 의미의 세계 속에 살게 된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의미론적 차원으로의 대이동이다. 'fort/da' 게임에서와 같이 주체의 정신 발달 역사상 원초적 기표 primordial signifier인 단일 기표와 대항 기표, 또는 제1기표 S_1 과 제2기표 S_2 와의 만남과 부딪힘, 그리고 그들이 엮어내는 의미화 과정은 "의미의 창조, 본능의 추방, 무

의식의 형성, 상징 질서나 대타자 속에 주체의 탄생, 욕망의 출현”⁷⁾ 등 정신분석사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있게 한다.

의미화의 과정이 본능 Trieb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표 S₁과 S₂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은 본능, 혹은 사물,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라캉은 이 과정을 의미를 위한 존재의 사라짐, 또는 ‘주체의 사라짐 aphanisis of the subjec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첫번째 의미화의 쌍(雙)은 그 기표가 처음에 대타자 the Other 속에서 나타남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제1의 기표, 즉 단일 기표는 대타자의 영역 속에 나타나 다른 기표를 위해 주체를 재현한다. 그 다른 기표는 결과적으로 주체의 사라짐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주체의 분열이 생기는데, 주체가 어느 곳에 의미로서 나타날 때 그 주체는 다른 곳에서 ‘사라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일 기표와 주체 사이에는, 사라짐의 원인체인 대항 기표를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⁸⁾

이 사라짐의 논리는 ‘사물의 타살,’ 즉 인간의 의미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존재로부터의 소외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해준다. 이 소외 구조는 존재와 의미 사이에 위치한 주체의 분열상을 말해준다. 주체가 한쪽에서 기호의 그물망을 통해 의미로서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는 ‘사라짐’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체는 이러한 분열된 구조 속에 존재하도록 ‘처형되어 있다.’ 이 분열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또 다른 이분법을 정신계에 도입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탄생은 주체의 상징 질서로의 진입과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을 형성한다.

이렇게 사물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사물은 ‘사라지고’ 그것의 은유적

7) Kaja Silverman,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P, 1983, p. 17.

8)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Alan Sheridan 역, New York: W. W. Norton, 1977, p. 218).

대변체인 기호의 그물망 속에 인간은 위치하게 된다. 이것이 상징계로의 진입이 가져오는 사물의 타살과 기호적 중재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부터 인간은 사물과 직접적인 교류를 중단하고 기호와 기호, 혹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이 엮여가는 의미의 연쇄 고리 속에서 삶을 영위해간다. 라캉의 또 다른 유명한 명제, “시니피앙은 다른 시니피앙을 위해 주체를 재현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앙의 행복한 결합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은유적 대치를 하는 시니피앙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라캉의 메타포 공식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공식화 과정의 결과로서 어렵פות이 드러나는 의미 생성의 문제는 그대로 주체의 탄생과 연결된다.

뒤에서 거론하겠지만 라캉이 프로이트에게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에게 충성을 거듭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이 그 정신분석학적 대부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통찰력을 더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프로이트의 이론과 개념을 ‘상징적으로’ 읽은 데 기인한다. 인간은 상징의 세계, 기호의 세계, 메타포의 세계에 살도록 ‘처형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키는 결정적·변별적 자질이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구별되는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상징의 세계, 문화의 세계 속에 살도록 운명지워져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이라는 데에 상징적 삶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것이 왜 재앙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상계에서 누렸던 특권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공생적 인과 관계로 대표되는 상상계는 구분과 차이가 없는 미분화된 ‘행복한’ 세계다. 이 단계에서 라캉의 ‘펠러스Phallus’는 상상적 기표로서 풍요와 충만, 행복한 결합의 지표로 작용한다. 이러한 에덴적 세계에 상징 질서가 도입되면서 ‘차이’ ‘결핍’ ‘부재’ ‘배제’ ‘상실’ 등 온갖 후기 구조주의적 불안이 자리잡는다. 선

악과를 따먹고 지식의 눈이 밝아진 대가는 자신의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운 인식이고 에덴 추방의 고통이었다는 성서적 우화는 상징 질서 진입에 대한 좋은 메타포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팰러스는 상징적 기표로서 차이와 결핍, 소외의 지표로 작용한다. “팰러스는 의미화 속에서의 소외의 기표에 대한 용어다.”⁹⁾

언어 습득의 정신분석학적 의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된 주체로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소쉬르의 기호적 다이어그램의 중간 가름대는 글자 그대로 의식적 담론과 무의식적 욕망 사이의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장벽으로 해석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라캉의 언어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주체가 언어화 과정, 즉 상징 질서로의 진입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의식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이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라캉이 라플랑슈와 르클레르가 공동 집필한 문제의 논문 「무의식: 정신분석학적 연구」에서 제시한 “무의식이 언어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진술을 뒤엎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이기도 하다. 무의식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의 논쟁에서 라캉의 관점은 단연코 후자 쪽이다. 언어가 무의식의 생성 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라캉의 이러한 주장은 어떤 깊은 언어학적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그의 언어적 무의식론이 ‘준언어학 linguistique’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 자신의 언어관과 일반 언어학과의 일정한 거리를 천명하고 있다. 라캉이 언어적 무의식을 말하는 데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삼각 구도에서 드러나는 ‘부성적 메타포 paternal metaphor’와 ‘아버지의 이름 name-of-the father’이고 이것과 관련된 ‘원초적 억압’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위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된 주체를 말하면

9) Jacques Lacan, “Desire and the Interpretation of Desire in *Hamlet*,”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Shoshana Felman 편,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2, p. 28).

서 언어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예컨대 부성적 메타포에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말했을 때 이 무의식은 '원초적이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닌 기호, 혹은 기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무의식은 원초적인 것도 본능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니피앙의 요소들뿐이다"¹⁰⁾라고 말해 무의식이 시니피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캉의 이러한 관점은 프로이트의 그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무의식, 혹은 그것의 본령인 '이드'가 들끓는 본능의 가마솥이라고 언급한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필자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¹¹⁾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핵심적으로 본능의 대변체인 '본능의 관념적 표상체 *Vorstellungsrepräsentanz*'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기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의식이 의식의 담론에 등장하는 재현 과정도 이러한 기호적 성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압축과 치환 등 이른바 변형 *Umsetzung*, 자리바꿈 *Entstellung*의 과정이 단순한 본능적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라 기호, 혹은 기표의 의미론적 대치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라캉의 명제가 프로이트의 관점과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억압, 혹은 언어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의식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은유와 환유의 고리를 이루어 끈질기게 의식계에 자기 표현을 하고 이것은 의식적 담론의 전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라캉의 언어적 접근의 중심 내용이다.

데이비드 아차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¹²⁾ 라캉의 언어적 무의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언어적 관점에서 프로이트에 접근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언어의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살펴보

10) Lacan, *Écrits*, p. 170.

11) 박찬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 프로이트의 라캉 읽기」, 『우리 시대의 욕망 읽기: 정신분석과 문화』, 문예출판사, 1999, pp. 17~19.

12) David Archard,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La Salle: Open Court, 1984, p. 68.

아야 한다. 라캉의 언어관이 일반 언어 이론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 때문이다. 그는 언어의 문제에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의 색채를 강하게 실었다. 이것은 라캉의 핵심 개념인 상징 질서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무의식의 생성 문제를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드라마와 연결시켜 논하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 상상계와 거울 단계는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공생애적 이자(二者) 관계에 조용하고 언어의 습득을 통한 상징 질서로의 진입은 프로이트의 인식론에서 무의식의 생성과 관련된 원초적 억압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주체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과 감추어지는 것과의 괴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간극과 상동적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오이디푸스 단계라는 정신분석학적 사건이 어떻게 언어와 무의식의 문제하고 관련되는지 라캉의 프로이트 읽기를 자세히 따라가면서 정리해보자. 우선 이 과정에 포함된 복잡한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는 조엘 도르의 말을 들어보자.

부성적 메타포의 성취, '원초적 억압'에 근거한 성취를 통해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상징적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지표가 언어의 출현(상징계로의 진입)이다. 원초적 억압은 은유화의 근본적 구조 과정이고 법의 원초적 상징화 작업이다. 그것은 '남근의 시니피앙을 부성적 시니피앙으로 대치함으로써' 실현된다.¹³⁾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부성적 메타포' '은유화' '상징화' '시니피앙' '대치' 등의 용어들이 도대체 오이디푸스 드라마를 설명한 프로이트의 텍스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라캉과 프로이트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원초적 억압' 정도다. 이러한 상황은 라캉이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언

13) Joël Dor,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Lacan: The Unconscious Structured Like a Language* (Judith Gurewich 번역, London: Jason Aronson, 1997, p. 113).

어적 관점에서 다시 쓰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언어적 변안 작업’에 동의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밝혀야 할 문제는 이 복잡한 언어적 개념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들을 놓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수미 일괄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우리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fort/da’ 게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겠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문제의 아이는 상징적 놀이와 시니피앙 ‘o/a’의 변별적 차이를 통한 발성을 통해 존재 차원에서 의미 차원으로, 상상 질서에서 상징 질서의 세계로 옮겨간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 단계이고 정통적 의미에 있어서 상징계로의 진입은 본격적인 언어 사용의 단계를 기다려야 한다. 그 당시 그 아이의 나이가 한 살 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rt/da’ 게임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닥치게 될 오이디푸스 드라마의 예고편으로 프로이트의 표현대로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상징화 작업을 통해 주체와 객체가 미분화된 즉물적 경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이것은 “사물이 표상화되기 위해서는 상실되어야 한다”는 라캉의 상징의 탄생과 사물의 죽음에 대한 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상상계 속에서 아이의 어머니와의 공생애적 경험은 자신이 어머니의 욕망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환상, 다시 말해서 자신이 타자의 결핍을 채워주는 남근 Phallus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서 라캉은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헤겔의 욕망의 변증법에 나오는 조사 ‘의’의 중의법을 십분 활용하여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서 욕망되기를 욕망한다와 아이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이중 의미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Le désir de l’homme, c’est le désir de l’Autre”¹⁴⁾라는 라캉의 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상상계에서 아이는 자신을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과

14) Lacan, *Ecrits*, p. 312.

동일시함으로써 “남근이 된다.” 여기서 펠러스는 아이와 어머니, 주체와 타자가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전형적 시니피앙으로서 라캉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fort/da’ 게임에서 문제의 아이 에른스트가 그의 상징화 작업을 통해서 이룩한, 혹은 그럴 가능성을 보인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머니의 남근 ‘이다 be’라는 상상계적 관점에서 남근을 ‘가진다have’라는 상징계적 관점으로 이동한 시각 차이이다. 그 아이는 더 이상 타자의 욕망의 ‘객체’가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 ‘이다/가지다’의 대극적 구조는 프로이트와 라캉이 다같이 주목한 문제로서 상상 질서에서 상징 질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교두보적 역할을 했을 뿐 상징계로의 진입에 결정적 계기를 제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본능적 언어 습득과 맞물려 있는 오이디푸스적 사건이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이와 어머니로 구성된 이자 구도에 제3의 요소인 아버지의 등장은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이는 아버지의 금제의 목소리에 놀려 어머니와의 공생애적 밀착된 관계를 포기하고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남근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해간다. 결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성공적 해결은 모자 관계의 패배와 부자 관계의 승리로 끝난다. 이때 전자의 억압된 욕망 관계는 원초적 억압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것은 곧 무의식의 탄생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간단히 요약해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드라마의 전경이다.

라캉의 독창성은 이 드라마를 언어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있다. 라캉은 오이디푸스 삼각 구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상들은 생물학적·물질적 차원을 벗어난 시니피앙의 차원에 위치시킨다. 그래서 ‘펠러스’는 생물학적 기관인 남근이 아니고 타자와의 완전한 결합을 위한 원초적 욕망의 상상 기표나 결핍과 소외의 상징 기표로 떠오른다. 아버지도 현실적 아버지가 아니라 ‘상징적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상징계의 법

(法)의 기표다. 라캉이 음성상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이름nom-du-père과 아버지의 금제의 목소리non-du-père를 병치시켜놓는 것도 ‘아버지’가 갖는 기표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

라캉은 유명한 메타포 공식, 혹은 ‘의미화의 대치 과정’을 통해 오이디푸스 드라마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언어적 공식으로 도식화하고 있다.¹⁵⁾

$$\frac{S}{\$'} \cdot \frac{\$'}{x} \rightarrow S \left(\frac{I}{s} \right)$$

여기서 \$'는 제1의 시니피앙이고 S는 그것을 대치하는 제2의 시니피앙이다. x는 미지의 의미이고 오른쪽에 있는 s는 은유적 대치 과정에서 생긴 시니피에다. \$'에 사선이 간 것은 의미화의 대치 과정에서 억압되어 사라짐을 말한다. 이 제1시니피앙의 사라짐은 메타포 과정의 성공 조건이다. 그 조건의 충족은 무의식의 생성으로 연결된다. s가 이탤릭체 소문자로 표기된 것이나 시니피에가 들어설 가름대 밑에 미지의 x가 들어선 것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행복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소쉬르의 기호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 라캉 특유의 ‘시니피앙의 우위성 primacy of the signifier’을 말해준다. 이 메타포의 공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의미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으로 은유적 대치 현상이 벌어질 때 원래의 시니피앙은 억압되어 사라져 무의식화되고 결과적으로 정면에는 대치된 시니피앙이 포진하고 밑에는 어렴풋한 시니피에의 생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은 이어서 이 메타포의 공식을 오이디푸스 드라마에서 발생하는 ‘부성적 메타포’ 혹은 ‘아버지 이름의 메타포’에 적용하고 있다.

15) Lacan, *Écrits*, p. 200.

$$\frac{\text{아버지의 이름}}{\text{어머니의 욕망}} \cdot \frac{\text{어머니의 욕망}}{\text{주체의 기의}} \rightarrow \text{아버지의 이름} \left(\frac{0}{\text{펠러스}} \right)$$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부성의 기표 S가 남근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기표 S'를 대치한다. 이 욕망의 기표는 가름대의 밑으로 떨어져 그것이 의식적 담론의 배후에 위치함을 암시한다. 그것은 기표의 은유적 대체 과정에서 S'가 사상되어 무의식화되는 메타포 공식을 따라간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다음 표층 구조에 부각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 질서의 기표다. 이후부터 주체의 언어 생활에서 부성의 기표는 기표의 우위성의 논리에 따라 의식적 담론의 정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반면 모성적 욕망의 기표, '펠러스'는 무의식층으로 떨어져 기표들의 거주지인 대타자 속에 자리잡는다. 이것이 라캉의 부성의 메타포 공식이 전달하는 메시지다.

여기서 이 공식에 함축된 억압과 무의식의 관계, 그리고 무의식의 재현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무의식의 생성은 억압의 문제를 전제로 한다. 억압의 현상은 의식계에서 누르는 힘과 무의식계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정통 억압, 혹은 제2의 억압이다. 그런데 이 논리를 최초로 무의식이 있게 한 원초적 단계까지 밀고 나가면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없이 위에서 누르는 힘만으로 무의식이 생성되어야 하는 '신화적 단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단계가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적 억압 Urverdrängung'이다.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세히 논했으므로¹⁶⁾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으나 이 글의 논리 전개를 위해서 한 가지 점만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원초적 억압의 결과 무의식에서의 기호적 '기록 inscription' 혹은 '등록 registration' 현상이 발생

16) 박찬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 p. 17.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초적 억압은 정신계의 심층부에 '무의식적 기표 unconscious signifiers'가 존재케 하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때에 기록되고 인각된 기표들은 '핵심적 기표들 key signifiers'로서 이후에 계속되는 억압 행위에서 중심적 흡인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은유와 환유적 연상 고리를 따라 의식적 담론에 끼여드는 등 주체의 삶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라캉의 메타포 공식에서 부정적 기표 S가 모성적 기표 S'를 대치하는 과정이 바로 원초적 억압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욕망의 기표 S'가 억압되고 '아버지의 이름' S가 담론의 정면에 부상한다. S'가 생략되어 사라지는 것은 억압의 논리를 잘 설명해준다. 이 억압의 결과로 무의식이 생성되는 것은 오른쪽 가름대 위에 있는 'I(Inconscient)'의 심벌이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두번째 도식에서 'I'에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심벌 'O'도 역시 억압과 무의식의 상관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답변을 우리는 라캉의 진술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된다.

대타자(O) 속에 있는 기표의 존재는 사실상 주체에게는 보통 닫혀져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억압된 verdrängt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곳으로부터 그것은 반복 강박 Wiederholungszwang의 수단에 의해 자신을 기의 속에 드러내려고 끈질기게 노력하기 때문이다.¹⁷⁾

우리는 이 말이 남근적 욕망의 기표가 은유적 대치 과정에서 억압되어 대타자 속에 무의식적 기표를 형성하고 그 중추적 기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식계에 자기 표현을 시도한다는, 앞에서 말한 원초적 억압의 설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라캉이 억압된 기표의 재현의

17) Lacan, *Écrits*, p. 200.

지를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체는 기표 '아버지 이름'을 얻음으로써 상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억압된 욕망의 기표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욕망의 불멸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고야 만다 return of the repressed는 정신계의 보편적 법칙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라캉의 언어적 무의식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캉은 언어적 관점에서 프로이트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언어에 접근했다. 그의 언어관이 일반 언어학과 구별되는 것은 그 속에 프로이트의 색채를 강하게 투입했기 때문이고 그의 프로이트론이 현대성을 띠는 것은 고전적 프로이트를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적 무의식론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 발달 사상의 결정적 계기로 파악한 오이디푸스적 전환기를 인간이 상징 질서로 진입하는 사건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드라마의 삼각 구도는 의미화의 대치 과정인 메타포의 공식으로 설명되었다. 은유적 대치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초적 억압을 수반하고 이 억압은 곧 무의식의 생성으로 연결된다. 이 무의식은 억압된 것은 되돌아오고야 만다는 정신계의 준엄한 법칙에 따라 의식계에 끈질기게 자기 표현을 시도한다. 무의식의 자기 표현 방식이 연상적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 과정과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라캉의 반복된 진술의 참뜻과 만나게 된다. 무의식은, 혹은 그것의 효과는 언어와 같은, 다시 말해서 은유와 환유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의식이 의식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차례에 와 있다. 이것은 꿈, 재담, 증상, 언어의 실착 등 프로이트의 이른바 네 가지 무의식의 형성 과정과 관련되는데 라캉은 이 과정이 모두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입증해왔다. 그 중에서도 꿈의 경우는

전형적이다. 그는 「말과 언어의 기능과 분야」에서 꿈의 문제가 곧 기호, 글자, 글쓰기 등 언어의 문제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꿈의 해석』에서 나오는 프로이트의 작업을 다시 한 번 거론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즉 꿈은 문장의 구조를, 혹은 그 작업의 글자에 집착해서 말하면, 그림 수수께끼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꿈은 글쓰기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린이의 꿈은 그것의 원초적 표의 문자를 나타내고 어른의 경우, 그것은 의미화 요소의 음성적·상징적 사용을 재생산해낸다. 그리고 그 글쓰기의 구조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중국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글자체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¹⁸⁾

이 말에 이어 그는 꿈의 수사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온갖 수사적 용어를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와 비유의 언어들이 문제시되는 분야가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 중에서도 ‘꿈의 사고 Traumgedanke’가 꿈의 이미지 Traumbilder로 변신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꿈의 작업 Traumarbeit’이다. 필자는 이미 이 개념이 갖는 기호적 가능성을 여러 각도로 접근한 적이 있지만,¹⁹⁾ ‘왜곡’과 ‘자리바꿈’의 뜻을 갖는 ‘Entstellung’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꿈의 작업은 그 재현 가능성의 고려 Darstellbarkeit, 대치적 성격 Ersetzung 등으로 인해 기호적 과정,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꿈의 기호적 변형 과정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꿈의 작업은 시니피앙의 법칙을 따른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라캉은 또 다른 곳에서 “프로이트에 의해서 ‘제1과정’——그 속에서 무의식이 법칙성을 띤다——이라고 명명된 메커니즘은 이 학파가 언어의 효과 중 가장 근본적인 양상, 즉 은유와 환유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

18) Lacan, *Écrits*, p. 57.

19) 박찬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 pp. 20~30.

는 기능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²⁰⁾고 단언한다. 이제 라캉의 이러한 발언을 바탕으로 ‘제1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인 증상의 형성 과정을 은유와 환유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언어적 무의식론을 구체화시켜보자. 여기서 드는 증상 사례는 도르의 임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²¹⁾

이 분석 사례는 어떤 젊은 여성의 ‘가족 공포증’에 관한 것이다. 문제의 이 여자 Y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 대한 공포증이 발발했다. 처음에는 작은 가족 제품에 국한되었으나 점점 가족 옷, 가족 가구 등 모든 가족 관련 대상에 대한 공포증으로 확산되어갔다. 물론 본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임상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기억과 연상은 이러했다. 어렸을 때 혼자서 자기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수음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끼여들어 “만약 네가 그런 더러운 짓을 계속하면 너의 손을 싹둑 잘라 악어의 입에 처넣을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했다. 그후 그녀는 동물원에 가서 악어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턱을 거칠게 여닫는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Y는 학교에서 악어의 표피가 가족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5세 생일에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족 핸드백을 선물했을 때 가족 공포증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이 등장한다. 어머니의 거세 위협과 악어와의 무서운 조우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이 라캉이 말하는 의미화의 대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공포증이라는 증상적 기호로 발전한 것이다. 첫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거세’와 기표 ‘악어’가 은유적 대치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두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악어’와 기표 ‘가족’과의 환유적 치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 두 과정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첫번째 상황부터 점검해보자. Y가 수음을 하다가 어머니로부터 호된 질책과 더불어 그녀의 손을 잘라 악어에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세 위협

20) Lacan, *Ecrits*, p. 298.

21) Dor, pp. 142~44.

을 받은 사건은 그에게 하나의 큰 정신적 상처 trauma로 자리잡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가축 공포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원초적 기표' S₁으로 표시하자. 그러면 성적 억압을 동반하는 거세 위협은 S₁/s₁ 라캉적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악어의 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했고 그것은 곧 그후 동물원에서 조우했던 사나운 악어의 무서움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항적 기표' S₂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어 공포증은 S₂/s₂라는 제2의 라캉적 기호로 등재되어 제1의 원초적 기표와의 연상적 관련 속에 의미화의 대치 현상을 발생시킨다.

$$\frac{S_1}{s_1} \cdot \frac{S_2}{s_2} \rightarrow \frac{S_2}{\frac{s_1}{s_1}}$$

이 도식은 도르의 암시에 따라 라캉의 메타포 공식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이 도식이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제1의 기표와 제2의 기표가 은유적 대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표 S₂가 정면에 부상하고 그것의 기의 s₂가 잠정적으로 사라진 반면 그 자리에 기호 S₁/s₁가 대신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 원초적 기호는 형태상으로 가름대의 밑에 위치하고 있어 의식계에서 억압되어 무의식계에 포함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때 이 기표 S₂, '악어'는 '은유적 악어'가 되어 '악어목의 파충류'라는 사전적 의미의 기의를 상실하고 '성적 거세'라는 새로운 의미를 기의로 취한다. 이것은 하나의 기표가 여러 개의 상이한 기의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의 기의가 또 다른 복수적 기표를 가질 수 있다는 라캉의 기호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제 Y의 언어 생활에서 '악어'라는 기호는 직설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로 동시에 사용된다. 그의 의식적 담론에서는

악어라는 명사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동물을 지칭하는 반면,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동일한’ 기호가 의식계와는 ‘다르게’ 입력된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이중 기록설 double inscription을 재해석한 라캉의 기록설이다.

의식과 무의식에는 동일한 기표가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기표의 차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이 지형학적으로 다른 장소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록은 서로 다르다. 의미화 과정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각각이 전체적 의미의 연쇄 속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²²⁾

‘동일한 기표’가 의식과 무의식에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린 한스’의 경우, ‘아버지’라는 기표가 의식적 담론과 무의식적 담론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탈리비도 집중 de-cathexis 상태에서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는 전자와는 달리, ‘말(馬)’이라는 기표로 대치되어 무의식의 상징 텍스트에 등재된 전자의 기표 ‘아버지’는 강한 정신적 에너지를 동반한 채 한스의 정신 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렬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는 데서 전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Y의 경우도, 그가 진정 무서워하는 것은 현실적 악어라기보다는 그것과 은유적 연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무의식의 ‘은유적 악어’ 즉 거세 위협이었다.

이러한 이중 기록설의 가능성은 라캉의 유명한 ‘L모형’에도 암시되어 있다. 상상계의 축인 o-o'가 의식적 담론과 관계가 있다면 상징계의 축인 S-O는 무의식적 담론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의 담론은, 두 축이 교차되는 사실이 잘 보여주듯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말이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뜻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발화 내용 énoncé’의

22) Anika Lemaire, *Jacques Lacan* (David Macey 영역, London: Routledge, 1977, p. 130에서 재인용).

주체와 '발화 행위 énonciation'의 주체의 구별하고도 관련되어 분열된 주체의 담론적 분열상을 잘 말해준다. Y는 직설적 악어를 말하면서 동시에 은유적 악어를 말하고 이 은유적 악어가 그의 증상적 공포증을 담보해준다.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Y가 악어 공포증에 걸렸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그가 그후 가족 공포증에 걸린 것을 보면 이미 그럴 가능성은 강력히 시사되어 있다. Y의 담론에서 '악어'라는 기호가 S_2/s_2 이라는 평상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S_2/S_1/s_1$ 의 은유적 의미로 무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그리고 그것이 강박성을 떨 때, Y는 이미 '악어 공포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악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현실적 악어에 대해서 병적 공포증을 보이지만 사실인즉 그 악어의 은유적 대체인 거세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은유적 대치/억압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야콥슨의 표현대로 '악어 공포증'과 '거세 공포증'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유사성 similarity of semantics'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메타포로서의 증상이란 현상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Y가 동물원에서 겪었던 악어에 대한 무서움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세 위협에 전이되어 은유적 연상 고리를 형성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때 Y에게 있어서 악어와 조우한 동물원 사건만으로 병적 증상이 발발한 것은 아니다. 이 제2의 사건은 어렸을 때 겪은 제1의 사건과 은유적으로 연결되면서 병리적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제1의 사건인 거세 위협도 그 자체만으로 병리적 조건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가치 중립적인 기표로 정신계에 인각되어 있다가 악어와 관련된 제2의 사건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하나의 정신적 큰 상처로 정면에 부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Y가 겪고 있는 정신적 트로마와 그것의 기호적 표현인 증상 현상은 제1의 사건과 제2의 사건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사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프로이트/라캉이 말하는 유명한 '사후성의 논리 Nachträglichkeit'다. 프로이트는 이미

‘늑대 인간’의 임상 보고서를 통해 한 살 반 때 겪은 가치 중립적인 기표와의 조우가(부모의 성관계를 목격하는 원초적 장면) 네 살 때 꾸게 된 늑대 꿈을 계기로 엄청난 소급적 의미를 부여받고 늑대 공포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후성의 논리를 예증한 바 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제1의 사건인 원초적 장면은 Y가 겪은 거세 위협에 상응하고 제2의 사건인 늑대 꿈은 악어와의 조우와 관계되며 늑대 공포증은 악어 공포증으로 설명된다. 세르게이의 사례에 이어 Y의 경우도 사후성 논리의 전범적 사례로 정신분석사에 길이 기록될 만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증상의 형성이 의미화의 대치라는 메타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캉의 주장을 논증해보았다. 이 메타포의 과정이 의미론적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의미의 대치 현상이었다면 Y의 악어 공포증이 가족 공포증으로 바뀌는 현상은 다시 야콥슨의 표현대로 ‘의미론적 유사성’에 바탕을 둔 환유적 치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Y는 학교에서 가족 제품이 악어의 표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가족 핸드백을 선물 받자 가족 공포증이 발발했던 것이다. 악어와 가족과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적 관계로서 전형적인 환유적(혹은 제유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제 앞의 예에 따라 ‘가족’이라는 제3의 사건을 S_3/s_3 라는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frac{S_2}{S_2} \cdot \frac{S_3}{S_3} \rightarrow \frac{S_3 (\cdot \cdot \cdot S_2)}{S_2}$$

이 환유적 도식은 앞에서 보았던 은유적 도식과는 달리 의미화의 대치 과정에서 축출된 기표 S_2 가 가름대의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 존재한다. 그것은 환유 과정에서는 의미의 문제가 S_3 가 S_2 와 가까운 인접성을 유지하면서 s_2 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메타포의 경우와 같이 s_3 가 잠정적으로 사라진다. 따라서 가족 공포

중에 걸려 있는 Y의 정신 세계는 '가족'이라는 제3의 기표가 '악어'라는 제2의 기표와 환유적 대치 과정을 겪으면서 악어의 기의 s₂는 보유하고 있으나 가족의 기의 s₃는 상실한 상태로 남겨진다. 이것은 Y가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전적 의미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왜 가족을 무서워하는가 하는 그 공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설명해준다.

우리는 여기서 은유와 환유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물론 전통적 수사적 용어로서, 그리고 야콥슨에 의해 확대 해석된 언어의 두 축으로서 은유와 환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라캉도 여러 도식을 통해 이 두 비유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앞의 예에서 보듯이 이 둘의 의미화 과정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조적 동일성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대치 substitution'라는 단어에 한정해서 말할 수 있다. 의미론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거세'가 '악어'로 바뀌고 의미론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악어'가 '가족'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대체 논리가 작용하는 곳에는 '잠재적 기표 latent signifier'와 '명시적 기표 manifest signifier'의 구분이 생긴다. 담론의 정면에 드러난 명시적 기표는 무의식적 · 잠재적 기표를 추적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해준다. '악어'가 '거세'에 은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악어'는 '가족'과 환유적 연상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셀 그리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유의 메커니즘은 모두 이러한 대치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대치적 메타포는 여러 가능한 종류의 메타포 중의 하나다. 그러나 메타포의 공식 등 라캉이 결정적으로 중요시한 것이 대치적 메타포란 점에서, 그리고 "대치적 메타포의 경우에 있어서만이 은유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²³⁾는 점에서 대치 과정에 의한 메타포는 정신분석학상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과정에 입각한 은유와 환유의 구조적 동질성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23) Russell Grigg, "Metaphor and Metonymy," *News Letter of the Freudian Field* 3, 1989, p.

이 일련의 의미화 대치 현상을 역으로 추적하여 그 연상의 고리를 연결해보면 기표 S_3 '가죽'은 환유적으로 S_2 '악어'와 연결되고 이것은 다시 은유적 연상의 꼴을 따라 S_1 '거세'의 문제와 연결된다. Y는 이러한 일련의 은유와 환유적 연상 작용의 결과로 이유도 모르면서 가죽에 대한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무서워하는 대상은 가죽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며 이것들의 공포증을 유발했던 원초적 사건, 거세 위협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연상 고리를 역으로 풀고 난 결과론적 진술이다.

어렸을 때 겪은 트로마적 사건이 잠재적 기표로서 무의식에 인각되어 있다가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적 대치 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명시적 기표로 드러나고 그것은 다시 인접성을 근거로 제3의 기표로 변형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이 분석 사례 보고서는 무의식이, 혹은 무의식의 기호적 재현 과정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라캉의 진술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전범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